

빗 속 신록의 숲길 걸으며 대자연 심호흡



엄홍길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16좌 등반

<3> 변산국립공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의 3번째 코스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중 내소사를 끼고 있는 내변산이었다. 19일 서해안을 타고 북상하는 제7호 태풍 '카눈' 탓에 변산반도 인근에 불어오는 비바람은 무척 강했다.

산자락에 걸쳐 있는 비구름들도 바람을 타고 빠르게 북쪽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했다. 이처럼 태풍의 위력은 여전했지만, 이날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변산국립공원 원정대에는 600여 명이 참여해 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국내 유일의 바다와 산을 낀 반도공원으로, 기암괴석과 빼어난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는 해안선을 따라 볼 수 있는 외변산도 절경이지만, 이날 등반할 내륙의 내변산은 변산반도의 속살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산행은 악천후로 인해 원암봉계곡을 출발해 재백이고개, 관음봉 삼거리까지 내소사로 내려오는 3.6km의 코스로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다소 짧은 거리였다.

원암 공원지킴터에서 웅색하게 좁은 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막이 심하진 않지만, 곳곳이 돌투성이 바위길인데다 비까지 내려 미끄럼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한 여름 신록이 우거진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다. 시원한 바람을 타고

온 갯내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아마도 변산 앞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인 듯 하다.

얼마쯤 올랐을까, 숨소리가 가빠질 즈음, 비가 그쳤다. 일부 등산객들이 넓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 막걸리를 꺼내 들었다. 일행들은 준비한 오이에 된장을 찍은 뒤 습도 쉬지 않고 한잔을 깨끗이 들이키고 '카~'라는 감탄사를 쏟아냈다. 산행의 재미는 이런

길따라 변산반도 속살 유람

코끝엔 바람 타고온 갯내음

산 중턱서 막걸리 한잔 '카~'

내소사 천년의 역사 한눈에

데 있는 모양이다.

숨이 턱밀까지 차오를 때쯤 재백이고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 아래로 태풍 '카눈'이 몰고 왔을 비구름이 산자락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변산 앞바다의 시야를 가렸다. 날씨가 좋았다면 변산과 고개의 땅을 감싼 곰소만의 바다를 봤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재백이고개에서 관음봉으로 가는 길은 난코스다.

태풍 '카눈'의 위력이 다했는지 오후 들어 날씨가 빠르게 개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햇빛이 반가웠다.

때마침 산자락을 감싸고 있던 비구름도 걷히면서 산 건너편으로 바위절벽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곰소만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산등성이를 타고 등산객들을 만났다. 팔과 비에 젖은 옷 탓에 시원함은 더했다.

관음봉 앞으로 내소사를 발 아래 달고 산을 내려 오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즈음, 내소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창건된 절답게 한눈에 천년의 역사가 느껴진다. 대웅보전의 화려하면서도 단정한 꽃문살을 구경하고 나오면 내소사 전나무 숲길이 600여m 이어진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이 숲길은 한 여름 내소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휴식처로 꼽히고 있다. 빗속 악천후 속에서도 3시간의 산행을 마친 참석자들은 전나무 그늘 아래서 서로 안전사고 없이 산행을 무사히 마무리한 데 대해 서로 격려 인사를 했다. 참석자 김영미(여·51)씨는 "계룡산·주왕산·변산까지 3번의 원정대에 모두 참석했었다"며 "다음 산행인 민주지산 산행이 기대되며, 16좌 산행을 모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소사 일주문을 나서면 무려 1000년 간 우뚝 서있는 느티나무와 300년을 넘어서 보리수 나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글·사진=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에 참여한 광주·전남·전북지역 등산 애호가 600여 명이 빗속에도 이렇듯 하지않고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변산을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광주·전남·전북지역 등산 애호가 600여명이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에 참여해 변산국립공원 내변산 등반을 위해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다.

• 1921년 마크인레부부 설립 • 1934년 세계최초 프래임 백팩 개발 • 1950년 인류최초 인나푸르나 등반 후원 • 1963년 세계최초 무봉채 끈의 백팩 개발 • 1977년 세계최초 고어텍스 다운지켓 개발 • 1977년 인류최초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반 후원 • 1980년 인류최초 에베레스트 단독 등반 후원 • 2000년 세계최초 에베레스트 스노우보드 활강 후원 • 2010년 인류최초 인나푸르나 등정 기념 고어텍스 다운지켓 발매

진심을 만나자

산을 당신 뜻대로 하려 하지 마라
산의 뜻대로 당신이 하라
그것이 산의 진실이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